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안룩의 비구조적 조형성

임 지 아*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Non-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sian Looks in Modern Fashion

Ji-Ah Lim* · Min-Ja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 10. 22, 심사(수정)일: 2010. 2. 10, 게재확정일: 2010. 6. 25)

ABSTRACT

The cultures and traditions of Asia has the roots so deep and it is the origin of inspiration. Therefore, it is easy to find a different inspiration when designing, especially for Western designers who are seeking European tradition and its comparison.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Asian look is non-structural and has no clear form close to the structure of the body or mathematical ratio, but is steric with 2-Dimensional planed textiles, and has a flexible, non-structural formative characteristic related to the movable body. This is base on the vision of the universe that regards the parts as the whole. From this research, generally studying about the Asian look and its non-structural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 study looked closely into the aesthetic value of non-structural formative characteristics formation, with basis on the large dress regulation system of the western reasoning and rationalism and mechanism. At first, my study pointed on the dressing functionalism or Neo-classism considering emotions, Anti-Western aspect observing surrealism dressing and expressionism dressing. Second, with men and women showing similar outer shape without the equivalent element such from wearing a corset, the sexism is abolished. Finally, the designers' inner intention of art is being delivered, from the aspect that the expression of art, size and no waste of fabric shows effort of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giving value to the possibility of continuance.

Key words: Asian look(아시안 룩), non-structure(비구조),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적 특성), anti-western(반서구), destruction of gender(성적 특성의 해제), expression of art(예술성의 표현)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956)에 의해 일부 지원되었음.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i-Ah Lim, e-mail: jgigi2001@hanmail.net

I. 서론

트렌드 마케팅 분석가인 니콜 폴(Nicole Fall)은 “동양은 문화와 전통이 견고하고 뿌리가 깊어 끊임 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 무언가 다른 영감을 찾기가 수월하고, 특히 서양 디자이너들이 유럽 전통과 대조적인 것을 찾을 때 그것이 바로 아시아(Asia)다”라고 말하였다. 알렉산더맥퀸(Alexander McQueen)은 푸마(PUMA)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2010년 디자인으로 동양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제시하였으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역시 2009년 동양의 하렘 팬츠와 청삼 실루엣등을 주제로 하여 컬렉션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끊임 없이 아시아 문화에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며, 1980년 이후 파리무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비서구권 디자이너들의 세계적인 컬렉션 진출은, 이들이 전개하는 아시안 룩으로 세계인의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아시안 룩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인체의 구조나 수리적인 비례에 근거한 입체적이고 분명한 형태가 아닌, 2차원의 평면의 형태를 갖는 직물과 입체적이며 움직임이 있는 몸과의 관계에 의한 유동적인 비구조적 조형성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시아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비구조적인 형태는, 인체와 복식을 부분적 요소가 아닌 총체적인 외관으로 인식하는 기(氣)의 우주관에 의한 유무상생론(有無相生論)에 의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모호한 형식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 룩과 비구조적 형태에 대한 정의와 함께, 형태의 명료함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문화와는 대립되는 아시안 룩의 비구조적 형태가 현대패션의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미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확립된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현대패션에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안

룩은 아시아 민속복식의 이미지, 장식, 문양, 색상, 의복의 구조나 실루엣 등의 특징을 차용한 서구 복식의 한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 룩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라고도 부르며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베트남·타이·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지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포함하는 인도 반도와 인도양의 섬나라들을 지칭하는 남아시아 지역, 이란·파키스탄·몽골·티베트 자치구를 포함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때로 중동이라 불리며 터키·이스라엘·이집트를 포함하는 서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북아시아의 민속복식을 차용한 룩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현대패션에 나타난 사례연구의 범위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COLLEZIONI와 www.firstviewkorea.co.kr 컬렉션자료로 한정하였으며, 문헌연구는 서양문화가 아시아로부터 영감을 받기 시작한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미술사, 복식사, 철학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II. 아시안 룩과 아시아 민속복식에 나타난 비구조적 형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아시안 룩

아시아(Asia, 음역: 亞細亞 아세아)의 어원은 그리스어 “Asia”에서 나왔으며, 기원전 440년경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와 이집트에 대비되는 지역 개념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거나 혹은 아나톨리아 지방을 뜻하는 말로 ‘아시아’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도 호메로스는 트로이아의 동맹인 아시오스(Asios)와 그가 어느 늪을 묘사할 때 쓴 아시오스(Asios, 일리아스 2, 461)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그리스어 낱말은 아마도 기원전 14세기에 서부 아나톨리아에 있던 연합 국가 앗수와(Assuwa)에서 나온 듯하다. 이 외에도 아카드어로 “밖에 나가다” 또는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중동에서 해가 뜨는 방향을 일컫

는 (w)asû(m)에서 “아시아” 이름이 나왔으며, “동쪽”을 뜻하는 페니키아어 asa와 아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대륙의 지리적 경계는 아프리카-유라시아의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부분이지만, 그 경계선은 유럽과의 경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시아 대륙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 때문에 정확히 “아시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터키,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제외하고 “극동” 지역,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만 아시아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 그러하다.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즉 중동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태평양의 여러 섬은 포함하는 것으로, 태평양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오스트랄라시아 또는 오세아니아의 일부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¹⁾ 이처럼 아시아는 넓은 지리적 환경과 다양한 기후조건은 바탕으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존재하며, 많은 민족이 각각의 특유한 고유의 복식문화를 가진 민족복식이 존재한다. 아시아의 민족복식에서 영향을 받은 복식이 서구에 등장한 것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30세기 후반 이후 더욱 부각되었으며, 중국, 일본, 인도풍의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 이슬람, 동남아시아의 민족풍, 최근에는 몽골과 티베트풍의 복식이 부각 되는 등, 서구 패션의 아시아 민족복식에 대한 호기심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서구 물질주의의 타락과, 동양의 자연주의와 신비로움에 대한 동경심을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그에 따른 다원주의적 경향 역시 아시안 룩의 확산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

2. 비구조적 형태

복식에 있어 구조적 형태란 복식과 인간의 몸과의 관계를 뜻하는 형식을 일컫는다. 구조적인 디자인의 복식은 2차원적인 평평한 직물이 둥근 인체에 맞도록 복식의 내부에 재단이나 봉제를 통하여 입체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³⁾, 서양복식에서는 입체적인 인체를 표현하기 위해 이성적·수리적·합리적

사고로 인체 부위에 따른 비례와 구성라인(넥라인·암홀라인·바스트라인·웨스트라인·힙라인·스커트라인등), 다프트등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입체화를 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구조적 디자인은 인체를 평면적이며, 전체로서 인식하며⁴⁾, 인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구조적인 측면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2차원적인 소재 그 자체를 우선시하며 인체에 맞추어선이나 형을 구성하지 않으며 원단 자체가 인체에 둘러져 늘어뜨렸을 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구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⁵⁾ 따라서 비구조적 디자인에 의한 복식은 모호하고 비한정적이며 비교적 유동적인 외관을 갖게 된다. 또한 사물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직관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비구조적 형태는 대개의 경우 직물 자체의 형태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로 대부분 솔기가 직선으로 되어 신체에 밀착하지 않으며,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복식은 문화의 정신적 기질이 세계관 속에 외화(外化)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그러한 문화정신의 차이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복식 형식으로 구체화 되어왔고, 아시아 복식의 경우에는 기의 흐름을 중시하여 총체적 외관의 미가 강조됨으로써 특히, 비구조적인 디자인의 형식이 공통적으로 표출 된 것이다.⁶⁾ 아시안 룩의 바탕이 되는 비구조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아시아 민족복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동아시아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일종의 윤리학으로써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사상을 지배해온 유교문화와 한자문화라는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하나의 문화권역을 형성하여 왔다. 이는 수세기 동안의 교류로 인해 한중일 삼국간의 문화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식 문화 또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구조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00년대 사대부 부인복을 통해 살펴본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는 한복 <그림 1>⁷⁾, 원피스 형으로 일반적으로 기모노라 알려진 일본의 고소데 <그림 2>⁸⁾, 그리고 중

국 청나라 시대의 유(襦)와 군(裙) <그림 3>⁹⁾은, 공통적으로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재단하며, 입체적인 인체구조를 무시한 평면재단으로 인해, 착장시 신체의 특성을 감춘다는 특징이 있다. 모두 전개형 이라고도 하는 카프탄(caftan)형로 이루어진 삼국의 복식은 각각 한복은 고름으로, 기모노는 오비로, 중국의 유,군은 매듭으로 여밈을 하고 있다.¹⁰⁾

2) 동남아시아

베트남·타이·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지역은 아열대 및 열대 기후지역으로 '사롱(sarong)'형의 민속의상이 특징을 이룬다. 이 사롱형은 한 장의 천으로 만든 통치마 형태 <그림 4>¹¹⁾이며, 나라에 따라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사롱이라 부르고, 미얀마에서는 런지(Longyi), 라오스에서는 시(Sinh), 태국에서는 파-농(Phan-u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같은 습윤열대지역에서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땀이 증발하지 않으므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후 특성으로 인해 재단과 봉제를 하지 않은 긴 천을 몸에 둘러 늘어뜨리는 권의(券衣)형태나 허리둘레에 천을 감는 요의(腰衣)형태가 발달하였다.

3) 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로는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이 있으며, 대부분 긴 천을 몸에 감는 '드레이퍼리 형' 복식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는 인도여성의 복식인 '사리(Sari)' <그림 5>¹²⁾를 들 수 있으며, 네팔여성의 하의인 치타코파라야(Chhitako Phariya)라는 치마역시 한쪽 끝을 오른쪽 다리 부분에 두고, 그 자락을 한 번 몸에 돌려 감은 후 여분으로 앞에서 주름을 적절히 잡아주고, 남은 천자락으로 다시 한 번 몸을 돌려 감은 후 끝자락을 허리에 끼워 넣는 착장방식을 보여준다. 스리랑카의 사리는 블라우스의 왼쪽 어깨 위에 늘어진 한쪽 끝이 허리에 모아진 긴 천 형태이다.

4) 서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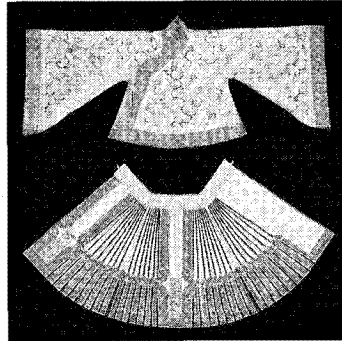
메소 중동이라 불리며 이란·파키스탄·몽골·티베트 자치구·터키·이스라엘·이집트를 포함하는 서아시아 지역은 지형적으로 북부와 남부에 고원을 이룬 곳이 많고, 기후는 고온 건조한 사막성 건조기후를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이러한 날씨의 특성으로 인해 서아시아에서 발달된 복식은 주로 인체의 수분증발 억제와 강한 햇빛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모래바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덮고 여러 겹으로 입는 복장이 주



<그림 1> 1900년대 사대부 부인복,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2008, p. 130.



<그림 2> 고소데(小袖), 복식문화, 2004, p. 101.



<그림 3> 청(淸)대의 유,군(襦,裙)



<그림 4> 인도네시아의 사롱(sarong)



〈그림 5〉 인도의 사리, *Costumes and Textiles of Royal India*, 1999, p. 121.



〈그림 6〉 차도르(Chador)



〈그림 7〉 따지크족(Tajik nationality)의 복식

를 이룬다. 이러한 기후 특성으로 인하여 서아시아 인들은 꼭 끼지 않는 의복 형태를 취하였으며¹³⁾, 따라서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란 여성들이 착용하는 차도르(chador) 〈그림 6〉¹⁴⁾가 대표적이다.

5)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Central Asia)는 아시아의 중부 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으로, 파키스탄 북부, 중화인민공화국의 티베트 자치구 등의 국가가 속해 있다.¹⁵⁾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선상에 있던 국가들로서 현재는 중국 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복식은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 동양적 감각과 서양적 감각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복식은 고비사막으로 둘러싸인 뜨겁고 건조한 기후와 모래바람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큰 일교차에 알맞은 형태로 발달했다. 즉, 서역의 이국적 형태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호모, 동양적 이미지의 평면 재단, 기온에 따라 깃을 짓히거나 여며 착용하는 번령, 반소매 옷, 단순한 형태에 장식적인 디테일들, 이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휴대하기 위한 대(帶), 사막 환경에 적합한 신들로 특징지어진다.¹⁶⁾ 타지크족(Tajik Nationality)의 복식 〈그림 7〉¹⁷⁾에서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아시아 민속복식을 통해 살펴본 비구조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p>전개형, 평면재단, 착장시 인체의 특성을 감춤</p>	<p>권의형, 요의형 한장의 천으로 만든 통치마 형태</p>	<p>드레이퍼리형, 긴 천을 몸에 감는 형태</p>	<p>드레이퍼리형,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덮는 꼭 끼지 않는 형태</p>	<p>전개형, 평면 재단, 기온에 따라 변형하여 착용 가능한 번령</p>

Ⅲ.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안룩의 비구조적 디자인의 미적 가치

1. 반(反)서구사상

현대패션은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보편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타자의 복식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며, 기존의 이성과 합리주의, 기계주의의 대량복제 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능주의 복식과 네오클래시즘 복식은 감성을 중시하는 초현실주의 복식과 표현주의 복식으로 이행하게 된다.¹⁸⁾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가장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을 들 수 있는데, 현대 패션에 있어 중요한 시대적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동안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던 데카르트(Ren Descartes)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의 몸을 단순한 육체(flesh)가 아닌 정신과 육체가 불가분의 통일체를 이룬 전인적인 실체로 인식하게 하였다. 즉 복식을 사람의 몸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자아·몸·복식의 전체성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르의 붕괴·혼합 양상과 함께¹⁹⁾ 서양과 제3세계간의 문화적 경계의 해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아시아 문화가 서양의 패션트렌드에 신선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기존의 복식형태와 입는 방식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미의 표현과 전달방식인, 독특한 아시안 룩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⁰⁾

패션계에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은 1980년대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이미지(image-clothing)의 옷으로써 서구의 전통적인 의복제작 기술을 무시한, 새로운 옷의 개념을 서구인들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이세이 미야케와 레이가와쿠보는 이러한 시도가 오랜 세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을 서구인들의 관습에 대한 도전이며, 단순한 전통복식의 모방이 아닌 동양과 서양의 혼합이라고 하였다.²¹⁾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 디자이너들은 인체를 상하와 좌우가 있는 수직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서구의 관점으로부터 이탈²²⁾하여 혁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는

복식과 몸 사이의 전통적인 유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서구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구조상의 완벽함에서 벗어난 디자인으로써, 착장방식의 변형, 비정형적인 배열, 불확정적인 형태구성의 방법으로 휘감기, 두르기, 걸치기 등 다양하게 레이어링하는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기존의 서양복식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디자인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서구의 입체화된 복식에 그들의 전통 복식의 기본 개념인 평면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평면형의 패턴을 서구의 입체적인 복식형태와 패턴에 적용시킴으로써 서양복식의 구조에 의문을 던지고 재구성 하였다. 이에 따라 복식의 입체화라는 관념을 파괴시키고 몸의 평면성을 추구하여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통해 서양복식의 구조적인 형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서구사회가 아닌 민속 의상이나 지역적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규범에 도전하여 복식의 관습뿐 아니라 패션의 본질과 미의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²³⁾ 1980년대 아시안 룩은 이세이 미야케, 겐조 다카다, 요지야마모토로 대표되는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한 일본풍 의상을 시작으로 하여 러시아의 코사크, 중국의 치파오, 인도의 사리와 초리, 모로코의 하렘 펜츠와 터번, 동남 아시아의 아오자이와 사롱, 아프리카의 텍스타일과 장신구,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 룩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민속의상들이 복식에 융합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디자이너들에 의한 움직임과 함께 서구사회 안에서도 히피문화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서구적 가치관에 대한 반감의식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동양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헐렁하고 비구조적인 스타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히피의 반서구적인 스타일은 하이패션에 적극 수용되었으며, 일탈, 자유, 해방을 나타내기 위한 요소로써 자주 사용되어 졌다. 히피는 1960년대 후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난 반사회적 일탈 및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집단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마약을 복용하며 비전통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공동 생활을 하였다. 또한 싸이키델릭(psychedelic)한 해프

닝에 동조하고 사랑, 평화, 자유를 주장하며 성해방이나 자연으로의 복귀를 중시하면서 보헤미안적인 생활과 동양적인 신비주의나 종교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만능에 대한 저항과 반전에 관심을 가진 하위문화로서, 민속풍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 여러 지역 민속의상의 요소를 패션 스타일에 차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옷을 겹쳐 착용하는 레어드 룩을 연출했다. 히피 스타일은 물질문명의 고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자아의 모색 등 저항정신을 담고 있으며 획일적 패션을 거부하여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며, 환경과 에콜로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주의와 이웃의 민족이나 소수민족에 관심을 갖고 민속적이고 동양적인 철학이나 종교에도 관심을 보였다.²⁴⁾ 이들은 또한 중고시장에서 중고의상, 오래된 고대의상 등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찾아 입었고 모든 문화의 모든 스타일을 혼합하였는데 특히 인도, 러시아, 터키의 특징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²⁵⁾ 이처럼 아시아 디자이너들과 서구 문명 내에서 일어난 히피스타일의 영향은 현대패션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 진다. 크리스찬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 <그림 8>²⁶⁾는 동아시아에서 보여지는 평면재단으로 인한 비구조적 형태에서, 존 갈리아노는(John Galliano) 천 한 장으로 몸을 감싼 인도의 사리 <그림 9>²⁷⁾에서 영감을 받은 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은 서구의 전통적인 재단방식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신체의 치수와는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하고,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실루엣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는 인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꼭 맞게 디자인한 전통적인 재단 방식에서 탈피 하고자 하는 반 서구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성적특성해체

남녀의 성차(性差)에 의한 복식형태의 차이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도구로서 뚜렷이 존재해 왔다. 서구 복식의 역사를 보면 중세 이후 수세기 동안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이 관습이었고, 남성과 여성의 복식의 형태가 유사한 문화권에서조차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서 성차를 뚜렷이 구별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영역할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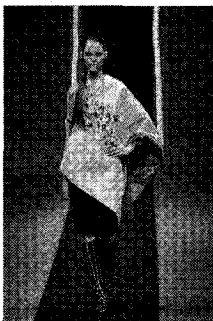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플뤼젤(J. C. Flugel)²⁸⁾이나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는 만약 두 성이 똑같은 의복이나 치장을 한다면 복식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²⁹⁾ 하지만 복식은 생물학적 성차를 뚜렷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적 특징을 은폐해 줌으로써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거나 반전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서구에서도 고대에는 남녀가 모두 드레이프형 이거나 단순한 튜닉을 착용하였지만 고딕시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의복이 출현하면서 점차 여성과 남성의 복식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복장은 점점 더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코르셋과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일반화가 된 것이다. 서구 패션에 도입된 아시안 룩의 비구조적 디자인은 코르셋과 같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거나 구속하는 요소가 없이 남녀가 비슷한 형태를 취하면서 성적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이처럼 서구사회에서 남녀의 성적특성이 해체되기 시작한 배경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시작되며, 17세기에 개화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봉건사회의 압제에 도전하여, 여성들이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프랑스혁명으로 본격화되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중심체제와 성차별주의를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 1851년 블루머(Bloomer)여사에 의해 무릎정도 길이의 느슨한 튜닉과 그 밑에는 발목에 주름이 잡힌 터키풍의 헐렁하고 볼록한 바지로 구성된 블루머 스타일이 소개되었다.³⁰⁾ 강연 때문에 잦은 여행을 하는 블루머 여사는 이 옷이 매우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여사의 옷차림이 남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남성의 권위가 지배하고 있던 언론계는 일제히 그녀를 공격해 치마를 입게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세계 1.2차 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러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지위향상과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게 되었다. 여성의 권력을 표출하기 위한 복식은 대표적으로 역삼각형의 구조적인 실루엣을 가지는 파워수트를 들 수 있으나, 시대의 변화

와 함께 생활의 여유, 유연한 태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80년대의 강한 워킹우먼의 이미지보다는³¹⁾ 넉넉하고 풍성하면서 비구조적인 실루엣의 편안하고 우아한 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캐주얼 지향의 패션마인드의 강세로 패션에 있어서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여된 케이프와 같은 비구조적이고 박시한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다.³²⁾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진 오버사이즈스타일의 복식은 여성신체의 곡선을 은폐한 중성적인 이미지로 성에대한 뚜렷한 경계를 거부하는 표현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동아시아의 복식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카프탄형 디자인을 전개한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그림 10>³³⁾과 플로에(Chloe) <그림 11>³⁴⁾의 디자인으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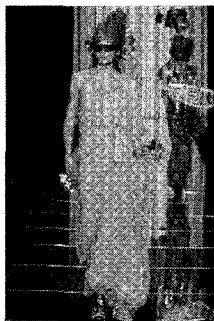
3. 예술성

일찍이 그리스 시대부터 '옷을 만드는 것'은 솜씨 혹은 기술을 의미하는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었지만, 르네상스 이래 예술 개념이 변화됨에 따라 복식은 예술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에 의하여 다시 예술의 한 영역으로 포괄되었으며, '옷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의 예술적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되어오고 있다.³⁵⁾ 즉 '옷'이란 창작자의 예술의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 대상으로 이를 통해 인간은 감정과 사상을 담아내고

있으며 당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각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외적인 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예술의지를 바탕으로 패션이라는 분야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내적 예술의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은 단순히 입기위한 '옷'을 만드는 작업이 아닌, 창작적 저술로서, 기술적인 생산물로서 그리고 문화적 매개체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패션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아이디어, 대상 그리고 이미지의 융화로 인식되고 있다.³⁶⁾ 비구조적 디자인은 같은 착장이라도 모델의 제시방법에 따라 다른 미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데, 즉 옷이란 인체에 착장되는 방식과 그 옷을 입은 착장자에 따라 다양한 미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맥퀸의 기모노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카프탄형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2003 FW컬렉션 의상 <그림 12>³⁷⁾은,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며, 여기에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바람과의 관계에 의한 형태의 변형까지 고려한 비대칭, 비구조의 기하학적인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션컬렉션에서 디자이너의 컬렉션 주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감동을 유발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형태의 의상을 새로운 구성방식으로 인해 그 가치를 재조명했을 뿐 아니라 컬렉션을 통한 디자이너의 '예술성'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Christian Lacroix, 2000 SS



<그림 9> John Galliano, 2005 SS



<그림 10> Antonio Marras, 2001 SS





<그림 11> FW Chloe, 2004



<그림 12> Alexander McQueen, 2003 FW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안룩의 비구조적 디자인의 특성과 미적 가치

대표적 사례			
미적 가치	반(反)서구사상	성적특성해체	예술성
비구조적 디자인 특성	평면재단, 카프탄형, 드레이퍼리형, 신체 치수를 고려하지 않음, 착용자의 의지에 의한 실루엣 변화가능	평면재단, 카프탄형, 오버사이즈, 여성 신체의 곡선 은폐	평면재단, 움직임과 바람에 따른 형태의 변화

위의 내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IV. 결론

아시안룩은 서구인들의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전통적인 서양의 패션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아시안 룩의 가장 특징은 인체의 구조나 수리적인 비례에 근거한 입체적이고 고정된 형태가 아닌, 평면의 직물과 입체적이며 움직임이 있는 몸과의 관계에 의해 모호한 형태를 지니는 비구조적 조형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아시아 민속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비구조적 형태는, 인체와 복식을 부분적 요소가 아닌 총체적인 외관으로 인식하는 기(氣)의 우주관에 의한 유무상생론(有無相生論)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안 룩과 아시아 민속복식에 나타난 비구조적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룩의 비구조적 디자인의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규명을 시도 하였다. 아시아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역의 민속복식을 통해 비구조적 조형성을 살펴본 결과 전개형, 평면재단, 착장시 인체의 특성을 감춤, 권의형, 요의형, 한 장의 천으로 만든 통치마 형태, 드레이퍼리형, 긴 천을 몸에 감는 형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 덮는 쪽 끼지

않는 형태, 기온에 따라 변형하여 착용 가능한 변령 등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아시안 룩의 비구조적 조형성은 현대패션에서 다음과 같은 미적 가치를 갖는다. 첫째,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던 이원론적 사고와 오랜 세월 몸에 꼭 끼는 옷을 착용해온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반하는 반서구사상적인 가치를 가지며, 둘째, 코르셋과 같은 인체를 구속하는 요소 없이 남녀가 비슷한 형태를 취하여 성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어우러진 중성적 이미지로 성에대한 뚜렷한 경계를 거부하는 성적특성의 해체에 대한 가치,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들의 내적 예술의지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예술성의 표현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안 룩의 가장 큰 특성중 하나인 비구조적 조형성은 현대패션 디자인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확립된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아시안 룩의 조형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Wikipedia. 자료검색일 2009. 8. 15, 자료출처 <http://ko.wikipedia.org>

- 2) 서봉하 (2007). *종교의 영향 받은 아시안 룩의 조형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50.
- 3)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1*. 서울: 교문사, p. 153.
- 4)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SNU PRESS, p. 120.
- 5) 권하진·김민자 (2006). 아시안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 56(6), p. 117.
- 6) 이진민 (2005). *한일 여성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6-27.
- 7) 권오창 (200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서울: 현암사, p. 130.
- 8) 황이유, 선은송, 진영옥 (2004).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2004, p. 101.
- 9) 청(淸)대의 유근(繻絹). 자료 검색일 2008. 9. 2. 자료 출처 <http://laiba.tianya.cn>
- 10) 안명숙, 장애란 (1998). 아시아지역의 민속복식 연구. *광주대학교 민족문화예술연구논총*, 7, pp. 89-90.
- 11) 인도네시아의 사롱(sarong). 자료검색일 2008. 9. 7. 자료출처 <http://www.flickr.com>
- 12) Kumar, Ritu, Muscat, Cathy (1999). *Costumes and Textiles of Royal India*. New York: Skira International Corporation, p. 121.
- 13) 황춘섭 (1996). *세계전통복식*. 서울: 수화사, p. 82.
- 14) 차도르(Chador). 자료검색일 2008. 10. 2. 자료출처 www.jenzamaya.tripod.com
- 15) Wikipedia. 자료검색일 2009. 8. 12. 자료출처 <http://ko.wikipedia.org>
- 16) 윤지원 (2007). 중앙아시아(1~7c) 복식을 응용한 디자인 상품 개발. *복식문화연구*, 8, p. 44.
- 17) 따지크족(Tajik nationality)의 복식. 자료검색일 2008. 10. 15. 자료출처 nndzlpzr.cn.china.cn
- 18)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2*. 서울: 교문사, pp. 260-261.
- 19) 이재당 (1998).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인물표현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21.
- 20) 김민자 (2009). *앞의 책*, p. 5.
- 21) *위의 책*, pp. 11-12.
- 22) Constantine, Mildred (1997). *Whole cloth*. New York: Monacelli Press, p. 197.
- 23) 임은혁 (2007). 일본 아방가르드 패션의 미학. *복식* 57(1), pp. 52-53.
- 24) 이수인, 박길순 (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21, pp. 70-71.
- 25) Nigel Cawthorne (1998). *Sixties source book*.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p. 159.
- 26) *Spring 2000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27)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28) Havelock Ellis (2007).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ume 2: Sexual Inversion*. Charleston: Biblio Bazaar, p. CHAPTER VI.
- 29) *Clothes Do Not Make the Man: Fashion and Gender Identity in Twentieth Century Scholarship*. Deirdre Clemente 79-864 Gender Rol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May 15, 2005. 자료검색일 2010. 3. 8. 자료출처 <http://www.deirdreclemente.com>
- 30) 손미희 (1999).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 현상과 패션. *복식*, 46, p. 52.
- 31) 최호정, 하지수 (2005). 우먼 파워로 나타나는 최근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 138.
- 32) 崔京姬,李順洪 (1999). 現代니트웨어 디자인의 變遷과 特性에 關한 研究. *Journal of Fashion Business*, 3(4), pp. 114-123.
- 33) *Spring 2001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4) *Fall 2004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5) 김민자 (2004). *앞의 책*, p. 40.
- 36) Breward, C. (2003). *Fash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15.
- 37) *Fall 2003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9. 2. 12.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